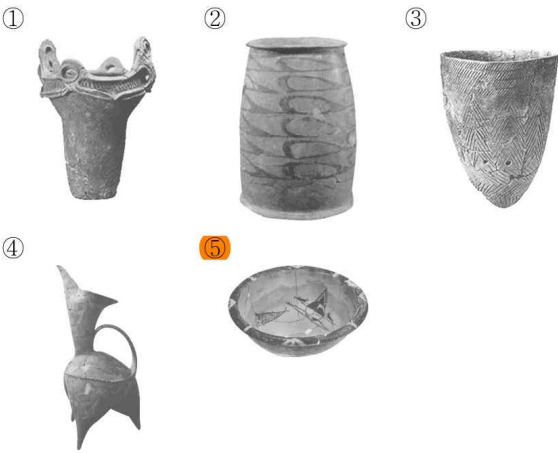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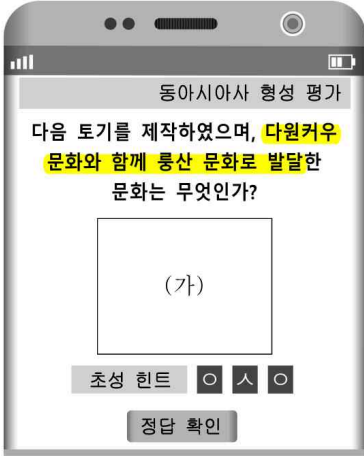


01.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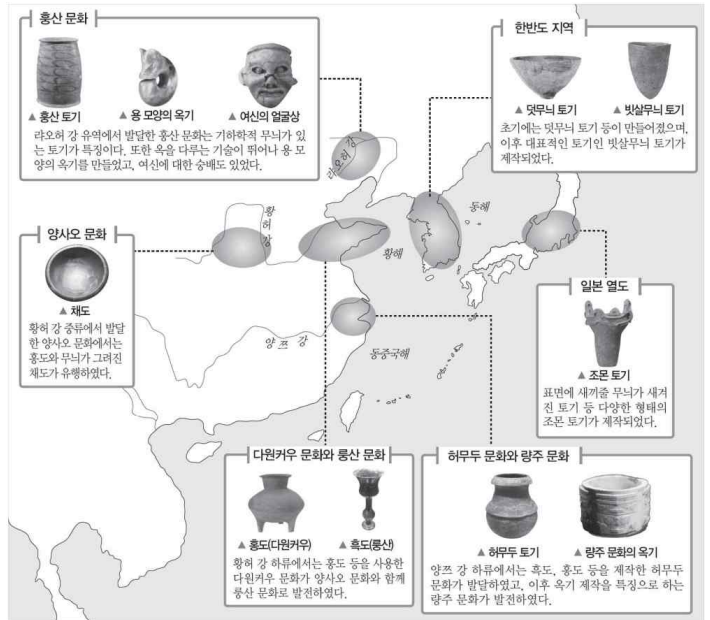


**1-02-2)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의 발달**  
 양사오 문화, 난이도 下  
**Key-Word**  
 : 다원커우 문화와 함께 룡산 문화로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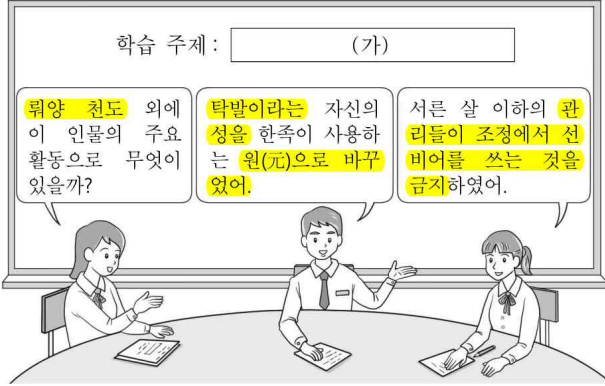
① 조몬 문화  
 ② 얼리터우 문화  
 ③ 빗살무늬 토기  
 ④ 다원커우 문화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4

문화	특징	
라오허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홍산 문화</b></li> <li>: 대규모 신전 유적(뉴허량 유적)</li> <li>: 여신의 얼굴상</li> <li>: 용, 봉황, 멧돼지 등을 형상화한 옥기 → 제사에 사용</li> <li>: 원통형 토기</li> </ul>	
황허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양사오 문화</b></li> <li>: 홍도</li> <li>: 인면어 무늬 채도</li> </ul>	⇒ 룡산 문화 (흑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원커우 문화</b></li> <li>: 홍도, 백도, 흑도</li> <li>: 세 발 달린 토기</li> </ul>	
창장강 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허무두 문화</b></li> <li>: 능기구, 범씨 출토</li> <li>: 흑도, 홍도, 홍회도</li> <li>: 고상가옥(高床家屋)</li> </ul>	⇒ 랑주 문화 (옥기 등)
만주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빗살무늬 토기</b></li> <li>• <b>돌보습, 돌쟁이 사용</b></li> <li>: 조·피·수수 등 재배</li> <li>• <b>돼지, 개 등 가축 사육</b></li> </ul>	
일본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몬 문화</b></li> <li>: 새끼줄 무늬(조몬) 토기</li> <li>: 불꽃 무늬 토기, 사람 모양 토기</li> <li>: 여성 모양 토우(土偶) 제작</li> <li>: 녹두와 표주박 재배</li> <li>: 능경보다는 수렵·채집·어로 활동</li> </ul>	



0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야율아보기의 부족 통합
- ② 쇼토쿠 태자의 불교 진흥
- ③ 위만의 이주와 집권 과정
- ④ 북위 효문제의 한화 정책
- ⑤ 한 무제의 통치 체제 정비

**2-01-2) 지역 국가의 성장**  
 호족 한족의 융합, 효문제의 한화 정책, 난이도 下  
**Key-Word**  
 : 뤼양 천도, 493년  
 : 탁발이라는 성을 원(元)으로 바꾸었어.  
 : 관리들이 조정에서 선비어를 쓰는 것을 금지하였어.

- ① 거란, 916년
- ② 일본 아스카 시대, 593~622년
- ③ 진·한 교체기, 기원전 194년
- ④ 기원전 141~기원전 87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4



- ▣ **중원[남북조 시대 ⇒ 수 건국(581) ⇒ 과거제(587) ⇒ 진(陳) 멸망(589)]**  
 : 북위의 5호 16국 통일(439~), 강남의 송(420~) → 남북조 시대  
 : 북위 효문제(재위 471~499)의 **호한 융합 정책**  
 ↳ 균전제(485), 삼장제(인장·리장·당장), 한화 정책(호어·호복 금지, 원씨)  
 : 돌궐의 유연 격파(552) → 북주·북제의 **훈인 경쟁**
- ▣ **한반도[백제 무령왕(☉, 재위 501~523), 신라 진흥왕(☉, 재위 540~576)]**  
 : 고구려 장수왕(☉, 재위 413~491) → 남북조와 조공·책봉 관계 수립  
 : 신라[남조의 양(梁)과 수교(백제의 도움, 521)], 백제[무령왕릉 축조(525)]
- ▣ **일본 열도[쇼토쿠 태자(574~593~595~622)]**  
 : 스에키(5세기, 백제·가야), 불교 전래(from 백제, 552), 아스카 문화(호류사)

☆ 2025 수능 특강 p.23

• 효문제가 말하기를, “..... 이제 북방의 언어(선비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토록 한다. 서른 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 올바른 언어에 익숙해지면 풍속이 새롭게 교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 수도에 머물던 관료들에게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웃기듯 좁고 소매도 좁았다. ....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의 호복 금지 조치를 어기고 있는가?”라고 꾸짖었다.

- 『위서』 -

03.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국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차지한 황제는 흉노를 공격하려 하였다. 이사가 아뢰기를 “흉노는 성곽에 살지도 않고 옮겨 다니는 것이 새와 같아서 제압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반대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군대를 보내 흉노를 공격하여 황허강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 ① 분서갱유를 단행하였다.
- ② 삼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③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 ④ 고조선을 공격하여 무너뜨렸다.
- ⑤ 히미코에게 친위왜왕의 칭호를 주었다.

**1-03-2) 국가의 성립과 발전**  
 진(秦)의 발전과 멸망, 난이도 下  
**Key-Word**  
 : 6국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차지(기원전 221)  
 : 흉노를 공격  
 : 황허강 북쪽으로 몰아내었다.

- ② 청 성조 강희제, 1681년
- ③ 명 성조 영락제, 1405년
- ④ 한 무제, 기원전 108년
- ⑤ 위 조예, 239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1

▶ **기원전**

- 1,046년 서주(西周) → 상, 멸망
- 770년 주의 동천 → 춘추(春秋) 시대
- 403년 전국(戰國) 시대(하극상·약육강식)
- 221년 진(秦)시황제, 전국 시대 통일
- 215년 몽염의 흉노 정벌, 만리장성 축조
- 213년 승상 이사의 건의, 분서갱유 단행
- 209년 목욕선우, 초원 시대 통합  
진승·오광의 난
- 206년 진 멸망  
초한 쟁패(항우 ↔ 유방)
- 202년 한(漢), 중원 재통일(漢并天下)
- 200년 한 고조, 평성 백등산 전투 패배
- 198년 한, 흉노와 화친(영제 관계, 공물, 화번공주)
- 194년 위만 조선 건국
- 141년 한 무제 즉위(~ 기원전 87)
- 139년 장건, 대월지 파견
- 111년 남비엣 멸망 → 한9군 설치
- 108년 위만 조선 멸망 → 한4군 설치

▶ **기원후**

- 8년 왕망, 신(新) 건국( ~ 23)
- 25년 광무제(유수), 후한(後漢) 건국
- 57년 한위노국왕인(후한 광무제 ~ 노국)
- 184년 황건적의 난
- 220년 후한(後漢) 멸망 → 위·촉·오 삼국 시대
- 239년 히미코 여왕, 친위왜왕(親魏倭王)
- 250년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출현

☆ 2025 수능 특강 p.12

이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시, 서 및 제자백가의 서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것을 거두어들여 불 태워야 합니다. …… 가져도 좋은 것은 의약과 점복, 농사에 관한 서적에 국한해야 합니다. ……” 시황제는 이 사의 상소를 허락하였다. - 『사기』 -

04.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의 황제가 거란(요)의 법을 폐지하고 세금을 줄이며 맹안과 모곡을 설치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 [가]이 화북으로 세력을 확대하자 고려는 거란(요)의 연호를 폐지하였다.

- ①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 ②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 ③ 백강 전투에 참여하였다.
- ④ 고유 문자를 사용하였다.
- ⑤ 안남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2-02-2) 북방 민족의 성장과 국제 관계의 다원화 거란(요)과 여진(금)의 성장, 난이도 下

Key-Word

- : 맹안과 모곡을 설치하라는 조서
- : 화북으로 세력을 확대
- : 고려는 거란(요)의 연호를 폐지

- ① 한 무제, 기원전 111년
- ② 청 고종 건릉제, 1782년
- ③ 나당 연합 ⇄ 백제 부흥군·왜의 수군, 663년
- ⑤ 당, 679~8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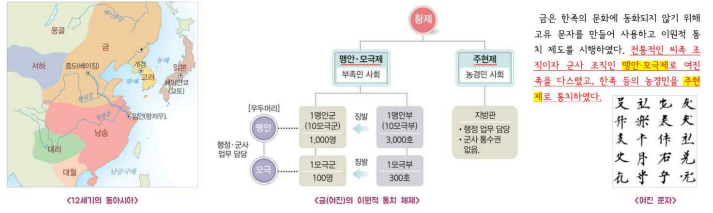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39~40



1. <대림(937~1253)>

<연문 169(연희유화) = 배(배) >

<비연관 남조선 >



<12세기기의 동아시아 >

<금(여진)의 이원적 통치 체계 >

<연문 169 >

금은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원적 통치 체도를 시행하였다. 전통적인 직·속·직이와 군사 조직인 **현안·모곡**으로 여진족을 다스렸고, 한족 등의 농경민을 **주현**제로 통치하였다.

夏 弘 先 友  
 作 樂 夫 夫  
 夫 十 伴 壯  
 文 序 石 羌  
 札 束 乎 无

☆ 2025 수능 특강 p.31

천현 11년(936) 후당의 하동 절도사 석경당이 그 황제에게 공격을 당하자, 조영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 거란(요)의 태종은 석경당에게 사신을 보내 알리기를, '짐이 군사를 일으켜 왔으니, 그대와 더불어 적군을 격파하고자 한다.'고 한 후, 후당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였다. 석경당은 후진의 황제로 책봉하였다. …… 천현 12년(937) 후진에서 섭연조 등을 보내 약속했던 우주(연주)·계주 등의 땅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대신 해마다 비단 30만 필을 조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태종은 조서를 내려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회동 원년(938) 후진에서 조영을 보내 우주(연주)·운주 등 16주의 지도와 호적을 바쳤다. -『요사』-

05. 밑줄 친 '귀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당성 좌윤 등 일행 105인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귀국은 동쪽으로 멀리 있어, 우리 발해와 거리가 만 리나 됩니다. 하지만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비추면 갈 수 있는 바다의 길이 드러납니다. 양국 간의 관계를 두터이 하고자 사신을 보내고 이를 귀국의 태정관에 문서로 알립니다.

- 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
- ② 선우의 명령을 받드는 좌현왕
- ③ 제사를 지내는 신기관의 관리
- ④ 독서삼품과를 준비하는 국학의 학생
- ⑤ 어사대에 관리 감찰을 지시하는 황제

**2-03-1)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율령의 동아시아 전파, 일본의 율령 체제, 난이도 下  
**Key-Word**  
 : 귀국의 태정관

- ① 고려와 조선
- ② 흉노
- ④ 통일 신라
- ⑤ 당과 고려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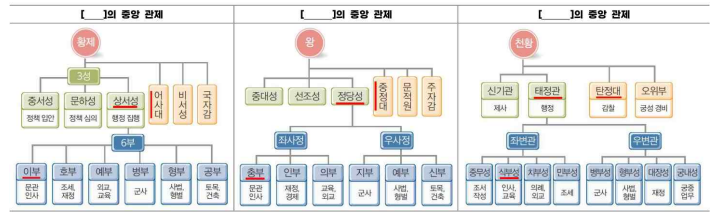
수(隋) · 당(唐)	특징	• 율령에 격(格, 율령 추가·보완)과 식(式, 구체적 시행 세칙) 추가
	중앙	• 3성(중서성·문하성·상서성, 황제의 통치 보좌) 6부(상서성 산하, 행정 업무 담당)
	지방	• 주·현 설치, 토지 분배와 과세·징병 등을 위해 호적 작성(3년 주기)
	관리 선발	•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 시행(587) ✓ 귀족 세력의 견제와 황제권의 강화
	교육 기관	• 국자감(중앙, 오경 등 유교 경전 교육), 문묘(공자 배향)
경제	• 균전제(영입전 + 구분전), 조(租)·용(庸)·조(貢)의 수취 체제	
군사	• 부병제(府兵制) → 농민의 병역 의무, 국가 상비군 제도	

▶ 한반도

삼국 시대	고구려	• 태학 설립(372), 율령 반포(373)
	백제	• 율령 반포(260), 관인수제리(262), 오경박사, 의학박사·역박사
	신라	• 율령 반포(520), 골품제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	• 집사부 이하 13관부, 9주, 5소경, 국학(682), 독서삼품과(788), 관료전(687), 정전(722), 민정문서(815년 경)
	발해	• 3성(영당성·선조성·종대성) 6부(중·인·위부·지·예·신부), 5경 15부 62주, 주자감, 문적원(도서와 문서 관리)

▶ 일본

다이묘 개신	645	• 난키노에 황지 주도, 소기노 이무카 계거(율령의 변), 담(唐)의 율령 체제 수용(반천수주제(구분전 지급, 652))
다이묘 율령 (후무 천황)	701	중앙 • 2관(태정관·신기관) 8성(리변관·우변관, 대학포(大學寮)) 지방 • 7도 - 국(國, 중앙에서 관인 파견) - 군(郡, 현지의 지방 호족을 중심으로 임명) - 리(里) 감찰 • 합정대(齊正臺)
요로 율령	757	• 제정(712) → '영의 해(永義解)',(833)



가장 2025 수능 특강 p.53

- 무릇 관호(관청에 소속된 상급의 천민)와 노비는 매년 정월에 본사(本司)가 신분별로 각각(籍) 2통을 만든다. 1통은 태정관에 보내고, 1통은 본사에 보관하며, 공(工)과 능(能)이 있는 자는 신분별로 모두 기록한다.
- 무릇 노비를 풀어 주어 양인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본적지를 거쳐 중무성에 문서로 통고하여 관련 사항을 삭제하거나 새롭게 등재한다.



06. 밑줄 친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황제가 **고려에서 건조한 선박을 동원하여 일본을 정벌**하  
라 명하였다. 그리고 장수 혼도 등에게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 황제가 **일본 정벌군을 돌아오게 하였다.** 적들의 저항에 부  
딛히고 폭풍우에 휩쓸린 탓에 살아남아 고려에 도착한 몽  
골군과 고려군이 열에 한둘에 불과하였다.

- ① 남송이 멸망하였다.
- ② 지정은체가 실시되었다.
- ③ 오닌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④ 전연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 ⑤ 곤여만국전도가 제작되었다.

2-02-2) 북방 민족의 성장과 국제 관계의 다원화

몽골 제국의 유라시아 통합, 쿠빌라이 칸, 난이도 下

Key-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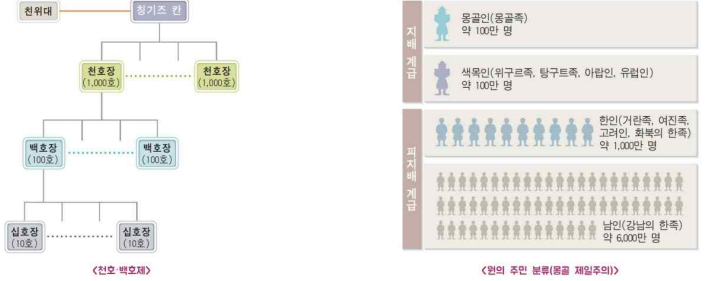
: 고려에서 건조한 선박을 동원하여 일본을 정벌

- ② 청, 정세를 지세에 통합(은으로 징수), 1712·1730년
- ③ 소군 후계 문제, 1467년
- ④ 송 ~ 거란, 1004년
- ⑤ 마테오 리치 ~ 이지조, 1602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46

태무진의 부족 통합과 몽골 제국 수립(1206) → 서하 복속(1209) → 금과 화원 조약 체결(1214) → **금의 연결 함락(1215)** → 호라즘 정복(1220) → 금 정복(1234) → 베트남 제1차 침입(1257) → 고려 복속(1270) → 삼별초의 대동 항전(1270-1273) → 국호 '대원'(1271) → 베이징 천도(1272) → 여진 연합의 일본 원정(1274-1281) → 남송 멸망(1279) → 베트남 제2차 원정(1284) → 베트남 제3차 원정(비극적 실패, 원화초, 1287) → 말디프(1368)

13세기 초 몽골 초원 지대에서 태무진이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고 쿠빌라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자신의 나라를 **오희 울루스(Ulus)**, 즉 대원대 몽골국(大元大蒙古國)이라 불렀다. 칭기즈 칸은 **원호-백호제를 군사적 기반으로 하여** 대외 정복에 나섰다. 먼저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고 금을 침공하였다.**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의 키예프 공국을 정벌하여 초원길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오고타이(우구타이) 칸(재위 1229-1241)**은 몽골 사신 지교에 살해 사건(1225)을 계기로 **1231년 고려를 침공하는 한편,** 1234년에는 **금을 멸망시켜(해운 정벌) 유목민 세계를 통일하였다.** 1270년 **쿠빌라이 칸(재위 1260-1294)**은 고려를 복속한 후 **1279년 남송을 정복하여**(by 비안, 중국 전역 지배)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또 고려-몽골 연합군을 조직하여 1274년과 1281년 총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의 기마쿠라 막부를 침공하였으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실패하였다. 몽골군은 3차례(1257(몽케 칸), 1284-1287(쿠빌라이 칸))에 걸쳐 대일본 원정을 침공하였지만, **원종다오(1228-1300)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그 후 대일본 원 왕조(1225-1400)는 전쟁을 피하고자 몽골에 조공 사신을 보냈다. 이어 몽골은 **저하를 공격하는 등** 군사적 위력에 힘입어 해상 교역로(비단길)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 2025 수능 특강 p.33

칭기즈 칸	• 친호·백호제에 기반하여 군사력 강화 • 서하·금 침공, 호라즘 정벌(비단길 장악) → 그의 후계자들은 동유럽까지 진출해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 건설
오고타이 (우구타이) 칸	고려 침공, 금 정복(1234)
쿠빌라이 칸	• 카라코룸에서 대도(베이징)로 천도, 국호를 원으로 변경(1271) • 고려 복속, 일본 침공(1274, 1281), 남송 정복(1279) → 유목 민족이 중국 전역 지배

지원 18년(1281) 정월, 일본행성의 우승상 아랄한과 범문호 등에 명하여 일본을 정벌하게 하였다. …… 8월, 여러 장수들은 군대를 잃은 채 돌아와 말하였다. “일본에 이르러 다차이후를 공격하려 하는데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전투를 벌이려 하였지만, 만호장 여덕표 등이 지휘에 따르지 않고 갑자기 도망가 버렸습니다. 일본행성에서는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고려의 합포에 와서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패잔병인 우창이 살아 돌아와 말하였다. “8월 1일에 거센 바람으로 배가 부서졌습니다. 5일에 범문호 등의 장수들은 각각 부서지지 않은 견고하고 좋은 배로 끌라 타고 병사들을 산 아래에 버려둔 채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무리는 성이 장싸인 백호정을 추대하여 지휘관으로 삼고 그 지휘에 복종하였습니다.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어 돌아오려 하는데, 7월에 일본인들이 습격하여 거의 다 죽었습니다.”  
- 『원사』 -

0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840년 8월 23일 예불을 마치고 <b>주작대로</b> <b>동쪽에 위치한</b> 종교 담당 관청을 찾아갔다. <b>(가)</b> 의 <b>수도 장안</b> 에서 불법을 배우기 위해 스승을 만나 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제출하였다.	845년 9월 22일 신라인 이신혜는 우리 일본에서 8년을 머물다가 <b>장보고와 함께 (가)</b> (으)로 왔다. 지금은 <b>법화</b> <b>원에서 우리 일행과 함께</b> 살면서 통역 등을 도와주 고 있다.
---	---

- ① 천 왕조를 공격하였다.
- ② 장건을 대일지에 파견하였다.
- ③ 금에 은 등의 물품을 보냈다.
- ④ 일본과 감합 무역을 전개하였다.
- ⑤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2-01-2) 지역 국가의 성장**  
지역 국가의 등장, 당, 난이도 ↓  
**Key-Word**  
: 주작대로  
: 수도 장안  
: 법화원

- ① 몽골(원), 1257년 · 1284년 · 1287년
- ② 한 무제, 기원전 139년
- ③ 송
- ④ 무로마치 막부, 1404~1547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34



삼국 통일 전, 당은 동돌궐, 고구려와 동아시아의 패권을 겨루고 있었고, 신라와 백제는 한반도에서 경쟁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고구려는 동돌궐과 동맹하여 당에 대항하는 한편, 백제와 친하게 지내며 신라를 견제하였다. 당은 고구려를 압박하며 동돌궐을 견제하였고, 백제는 왜와 연합하였다.

7세기 중엽,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가 실패한 당과 동맹을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660년 드디어 삼국 통일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전의 막이 올랐다. 먼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가 멸망하자 왜가 지원군을 보냈지만, 백강 전투에서 패하였다.** 수년 후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영토 배분 문제로 결별하였고, 이때 신라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과 함께 당과의 대결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메마린 티베트인이 세운 토번이 비단길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이때 당의 관심이 토번과의 전쟁으로 기울어지면서, 신라는 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

삼국 통일 직전의 동아시아 출처: 『차음 읽는 동아시아』, 1,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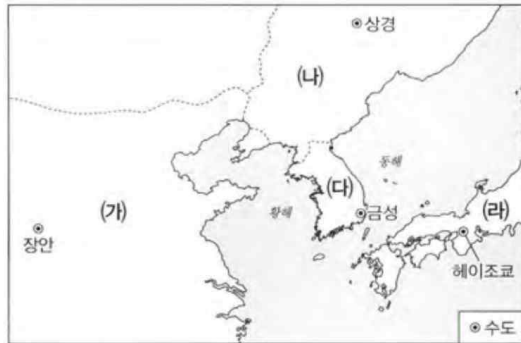
동돌궐: 몽골고원에서 흉기-철수와 목제가 동돌궐의 동주와 동북을 차지하려고 경쟁  
수국의 외교전도 치열 - 수의 이간책으로 약해 (동맹-고구려 연계 공격) → 당 초기에 당이 동돌궐에 대해 신하로 서지 - 당의 이간책과 공격으로 동돌궐 제압(동돌궐-당에 연계 유지됨) → 위구르에 밀항, 천 대건 배(동돌궐 문자 사용)

신라 사신과 장안들이 귀족의 다사리부를 호가하며 신라 문물을 일단의 전래

의정: 당에 유학하여 신라로 귀국(의정종 개황)  
원로: 당에 유학, 불교의 입देश, 권위(중국, 일본에 영월), 아비타산방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변강: 인도 순례, <대당서역기>, 가저은 경권을 대안법에 보라 → 말대 소신 <서유기> 집권  
의정과 다지낭당: 인도 순례  
갑진: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에서 계율을 가르침  
계유: 신라인으로 당에 유학(말고), 인도 순례, <왕오천축국전>  
연신: 일본(헤이안시대)에서 당에 유학(장보고)의 도술, 산동원도 법화원에서 기술, <임당구법순례행기>  
아베노 나카마루: 안남도호부(신라) 통치기관의 도후를 역임  
고림 왕 후의 크림 왕 목 황제: 당의 고관을 지낸 안남인  
최치원: 변용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가 된(보통소극관)

- 소도쿠 태자(574-622)
- 현장법사(602-664)
- **진당사(630-894)**
- 승현왕(627-649)  
↳ 당, **왕왕(630, 640)**
- **백강 전투(663)**
- 다지낭당(714-719)
- 시박사 원시(714-719)
- **말대 무왕(691, 재위 698-719)**
- **말대 무왕(691, 재위 719-737)**  
↳ 산동원도 공격(732)
- **말대 무왕(691, 재위 737-793)**  
↳ **상경성 침도(755)**  
↳ **말대 무왕(691, 재위 793-802)**
- **안남도호부(679-802)**
- 아베노 나카마루(698-770)
- 최치원(857-?)

2025 수능 특강 p.27



08. (가) 유학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일찍이 주희가 저술한 『사서집주』를 공부하였으나 이후 육경과 공자·맹자의 글을 읽으며 주희가 말하는 이(理), 성(性) 등의 뜻이 육경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육경에서는 “이(理)가 모든 사물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주희의 학설을 따르는 (가) 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이(理)가 성(性)이므로, 성(性)이 곧 이(理)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① 다이카 개신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수행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였다.
- ③ 서원과 향약을 통해 확산되었다.
- ④ 심즉리와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 ⑤ 한 무제 때 관학으로 채택되었다.

2-03-3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성리학의 성립, 성리학의 보급, 당, 난이도 下

Key-Word

- : 주희의 학설을 따르는
- : 성(性)이 곧 이(理)다.

- ① 당의 율령 체제
- ② 불교
- ④ 왕양명(왕수인), 양명학
- ⑤ 유교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77-78

제자백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자(인(仁) 강조), 맹자(의(義) 강조, 성선설), 순자(예(禮) 강조, 성악설)</li> </ul>
훈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시왕의 분서경유(분서경流)로 알려진 경서의 복원·해석을 중시하는 해박의 유학, 5경(서경·서경·역경·예기·춘추) 중시</li> <li>• 원(元)대: 통중서의 제언으로 무제 때 관학의 지위(중의 이념 실현)</li> <li>• 당(唐)대: 공영달의 『오경정의』 완성(고종, 653) → 훈고학 집대성</li> </ul>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족의 민족의식이 강화되는 남송(1127-1279) 시기 주희(1130-1200)의 완성</li> <li>•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철학적 유학</li> <li>• 『근사록(近思錄)』(주희, 1175) → 성리학(性理學), 이기론(理氣論) 중시, 기결공리(敬啟窮理)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li> <li>• 5경보다 4서(논어·맹자·대학·중용) 중시 → 『사서집주(四書集注)』(주희, 1177)</li> <li>• 군신 간의 의미와 대의명분 중시, 화이론 강조, 신분제·지주제 정당화,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소학(小學, 유자정, 1187)』 보급</li> <li>• 중국·조선 → 정치 윤리이자 사회 윤리, 선원의 건립(주희, 백운동 서원)과 향약(鄕約) 실시</li> </ul>
양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송(南宋)의 육구연이 심학(心學) 강조</li> <li>• 명(明) 대 왕수인(王守仁, 호 '양명', 1472-1528)의 완성, 실천적 유학, 『전심록(傳習錄)』(1511)</li> <li>↳ 심즉리(心即理, 마음이 곧 이), 양지(良知),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 강조,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li> <li>• 시대부편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친 공리공론으로 흐르는 폐단</li> </ul>
실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明) 후기, 실사구시의 실용적 유학</li> <li>• 『분초강목』(이시진, 의학, 1596), 『학공계몽』(송응선, 산업 기술, 1637), 『농정전서』(서경세, 농학, 1639)</li> </ul>
고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말 초창 황종희(1610-1695), 고명부(1613-1673) 등이 선구적 역할</li> <li>•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인 사실 규명 중시</li> <li>• 정(鄭)의 사상 탐입(문자의 속)과 한인 지식층 회유를 위한 대규모 편찬 사업 과정에서 발달</li> <li>↳ 『고금도서집성』(송정제, 1725), 『대의각미록』(송정제, 1729), 『사고전서』(전통제, 1773-1782)</li> </ul>
공양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법적 유학, 왕유웨이(1858-1927) - 탐치치요(1873-1929)</li> <li>• 진보 사관, 변법자강 운동(무술법, 1898)의 이론적 토대</li> </ul>

중국	남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書院)</li> <li>• 성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 → 사대부 결집에 영향</li> <li>• 향약(鄕約)</li> <li>•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지치 규약 → 성리학적 규범이 서민에게도 확산</li> </ul>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에 유학 이념을 적극적으로 보급</li> <li>• 『성리대전(性理大全)』(1415) 등 성리학을 집대성한 문헌 편찬 → 과거 시험의 참고서로 널리 사용</li> <li>• 지배 계층인 신사 → 지역 여론 주도, 향촌 사회에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에 이바지</li> </ul>

한반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li> <li>• 안향(1243-1306), 원에서 『주자전서(朱子全書)』 도입, 성리학 소개, 1290년(충렬왕 16) 확산</li> <li>• 만경당(1314-1320)에서 원(元)의 학자와 교류, 이체현(1287-1367)과 이색(1328-1396)의 활동</li> <li>• 사서(四書)가 과거 시험에 포함, 신진사대분기 성리학을 기반으로 불교 사원과 관문세족의 붕괴 비판</li> </ul>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의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국조오례의)와 사회 의례(주자가례)의 기준</li> <li>• 사림의 성장 → 양학의 보급(여세 향락, 1517), 백운동 서원 건립(1543) →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질서 확산</li> <li>• 성리학의 이해 심화</li> <li>• 이황(1501-1570) → 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양명학을 이단으로 비판(『전심록은변(傳習錄論辨)』), 『성학십도』(1568)</li> <li>• 이이(1536-1584) → 봉서 체재 감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 제시, 『성학집요』(1575)·『약령요결』(1577)</li> <li>• 철학적 논의 → 사단침정 논쟁(1559-1566), 안물상동이논쟁(18세기)</li> <li>• 조선 후기 → 부모 삼년상, 장남 중심의 재산 상속과 제사, 가묘의 사당 건립, 양자 제도 일반화, 현행(시집간다) 제도 확산</li> </ul>

2025 수능 특강 p.48

안다는 것(知)은 곧 마음의 근원이고, 마음은 저절로 알 수가 있다. 부모를 보면 저절로 효도하게 되고 윗사람을 보면 저절로 공경하게 되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양지(良知)이며, 이는 마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 양지가 드러나면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에도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 마음의 양지가 미혹되지 않고 가득 차서 흐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양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 『전심록』 -



09.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문학으로 읽는 동아시아사]

국치비가(國恥悲歌)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들이 많기도 하구나.  
어렵고 치욕스러운 화친\*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슬프다. ...(중략)...

구중궁궐 달 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리니  
멀리 오랑캐 땅의 왕자\*\*를 잊을쏘냐.  
그 외에도 억만창생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 국왕이 삼전도에서 적에 항복하여 군신 관계를 맺은 일을 의미함.  
\*\* 적의 수도 심양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의미함.

작품 해설 : 조선 후기 이정환이 남긴 시조로, [가] (으)로 인해 국가적 치욕을 당한 사대부의 비분강개한 심정이 담겨 있다.

- ① 삼별초가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다.
- ② 강홍립이 후금의 군대에 항복하였다.
- ③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 ④ 조선군이 담함산성에서 청군과 맞섰다.
- ⑤ 서희가 거란(요) 장수와 외교 담판을 벌였다.

3-01-2)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난이도 下

Key-Word

- : 국왕이 삼전도에서 적에 항복
- : 적의 수도 심양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 ① 고려, 1270~1273년
- ② 조선, 사르후 전투, 1619년
- ③ 임진왜란, 1593년 1월
- ④ 고려, 강동 6주 획득, 993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97

정묘호란(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해군(☹, 재위 1608-1623)의 중립 외교(명-후금)</li> <li>• 명(明)의 출병 요청 수락 → 사르후 전투(1619), 강홍립(1560-1627)의 투항</li> <li>• 인조반정(1623)</li> <li>• 광해군의 대내외 정책에 반감을 품은 서인 일파의 정변</li> <li>• 광해군 폐위, 능양군 후대[인조(☺, 1623-1649) 즉위] → 영의 책봉(1625)</li> <li>• 서인 정권의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li> <li>• 기도 사신[기도도독부 도독 모문룡(1622-1629)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이괄의 난(1624)과 단서 세력의 후금 투항, 명의 인조 책봉(1625)</li> <li>• 후금의 선양(瀋陽) 침도(1625)</li> <li>• 양원성 전투(1626)에서 누르하치(1559-) 사망</li> </ul>	
인계	• 후금 홀리이치(에위 1626-1636)의 침략 → 인조의 강화도 피난 → 황해도 평산(平山)까지 침입, 2개월간 지속	
결과	• 침도약조(1627)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조선과 황제의 맹약을 맺고 철수 → 조공 지급, 개시무역(開市貿易) 실시	

병자호란(1636. 12.-1637. 1.)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금의 황제건원(皇曆建元), 연호 '송덕';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1636),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li> <li>• 주화론(主和論)과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의 대립 → 척화론의 우세와 군신 관계 요구 거부 → 태종(송덕제, 재위 1636-1643)의 침략</li> </ul>	
인계	• 5일 만에 한성 함락 → 인조의 남한산성 피신 → 왕비와 왕족이 피란해 있던 강화도 함락 → 각지에서 올라오던 구원군의 패배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공·책봉의 군신 관계 체결</li> <li>• 삼전도의 굴욕(삼계구두), 별과 관계 단절, 명의 황정에 필요한 물자 제공, 대정황제공덕비(삼전도비) 건립(1639)</li> <li>•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척화론자 등 압송 → 심약관(『소현상양일기』(朝鮮商陽日記), 1637-1644) → 베이징(1644-1645)</li> <li>• 환향(속환)나, 방청 의식 고조(대명거사, 승정처사)</li> <li>• 이자성 반란(1631-)의 베이징 정벌 → 별, 별말(1644) → 산해관 전투(이자성) → 청·오상계 연합군 → 청, 베이징 입성(1644)</li> </ul>	

2025 수능 특강 p.62~63

정월에 때를 아민 등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정벌하도록 하였다. 오랑캐를 건너 모문룡의 군대를 칠산에서 쳐부수니 피도(가도)로 돌아가 숨었다. …… 조선 국왕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사신을 보내어 화의를 구하였다. …… 화의가 이루어져 형제 국가가 되기를 맹세하였다. - 『청사고』 -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묘년에 변을 당하여 부득이 임시로 화친하였는데, 오랑캐의 욕구는 한이 없어서 공갈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치욕이다. 그러나 치욕을 참고 통탄을 견디면서 점차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이 치욕을 씻기를 생각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요즘은 이 오랑캐가 더욱 창궐하여 감히 참람된 칭호를 가지고 의논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국서를 가지고 왔다. 이것이 어찌 우리나라 군신이 차마 들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에 강약과 존망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고 한결같이 정의로 결단을 내려 그 국서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인조실록』 -

10.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동아시아 도시 탐방 -

닝보에 남겨진 국제 무역의 흔적을 찾아서

**고려사행관**

□(가) 이/가 설치한 **고려 사신의 숙소** 설치된 지 약 10년 만에 **고려가 금과 군신 관계를 맺은** 후 고려 사신의 방문이 줄어들며 점차 유명무실해짐.

**파사관**

아라비아 상인들이 머물던 민간의 여관. 바닷길을 통한 원거리 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음.

**시박사**

해상 무역을 담당하던 관청. □(나) 을 /를 세운 **홍무제가 해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능이 중지됨.

- ① (가) -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 ② (가) - 토변에 화변공주를 보냈다.
- ③ (나) - 북로남왜의 어려움을 겪었다.
- ④ (나) - 산킨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⑤ (가), (나) - 자국 상선에 슈인장을 발급하였다.

**2-02-2) 북방 민족의 성장과 국제 관계의 다원화**  
**2-02-3) 명 왕조 시기의 국제 질서**  
 송의 대외 관계, 명의 조공 질서 확립, 난이도 하  
**Key-Word**  
 : 고려 사신의 숙소  
 : 고려가 금과 군신 관계를 맺은 후 ~ 유명무실  
 : (나)를 세운 홍무제가 해금 정책을 시행  
 ① 고려, 1104년 → 1107년(동북 9성)  
 ② 당, 문성 공주, 640년  
 ④ 에도 막부, 1635년  
 ⑤ 에도 막부, 1604~1635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41

11 전연의 영역(전제·미려한 교과서, p.61·55)

- 송의 황제와 요의 황제는 몇 대의 교린을 가졌다.
- 송은 요에 해마다 비단 20만 필, 은 10만냥을 보냈다.
- 양국의 역린은 몇 차례로 일어났다.

- 「속자치통감장편」 권 58

거란과 강화하고 친하여 사면함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12 □(가) - □(나) - □(다) - □(라)

수도를 포위당한 □(가)이/가 □(나)에 관아비와 조카 관계를 서약한 국서(國書)를 보내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 얼마 후 □(가)이/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나)를 공격하였지만 오히려 수도(카이펑)가 함락되고 황제가 시로잡혔다. 이에 일부 황족이 강남으로 옮겨 가 입안(항자루)을 수도로 삼았다.

13 소용 회의(1142)(□(가) = □(나) = □(다) = □(라) = □(마))

지금 □(가)와 □(나)는 회의를 맺어 화이화강(淮水)과 대산권을 잇는 선으로 국경을 정하였다. 아울러 □(가)는 대대손은 삼가 신하의 필요를 지어 □(나) 황제의 탄신일과 정월에 시절을 보내 풍안 인사를 여쭙고, 매년 봄에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냥을 보내주었다.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87

**Plus** 명(씨)의 내부위협과 강거용의 개혁

명(1368-1644)은 몽골을 북방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지만, 15세기 이래로 계속 몽골의 압박을 받았다. 몽골은 한때 명의 황제를 생포하고(도목보의 변, 1449), 베이징 성문까지 진격할(영선지변, 1550)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명은 이를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다시 축조하였다. 돌남해안에서는 16세기 초부터 왜구가 빈번히 침입하여 안팎을 신랄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절정을 막느라 명의 국력이 크게 소모되었다.

명 중기 이후에는 환관 세력이 득세하여 황제가 무능해지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어 국가의 기틀이 크게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장악한 장시정(1525-1582)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관료들의 인재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동지 조사를 하였고(문지 정량), 세금을 균등(문정)으로 내게 하는 일조(문정)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가 재정이 호전되는 등 중흥의 기운이 나타났다. 하지만 장시정이 죽은 뒤 그동안 억눌려온 관료와 신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환관 세력의 정횡으로 정치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다.

☆ 2025 수능 특강 p.34

<b>명</b>	• 주변국에 명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조선, 류큐, 여진, 일본 포함) • 정화의 황해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조공하는 국가 증가
<b>조선</b>	간국 직후 옹동 정벌 추진(명과 대립) → 태종 이후 명과 안정적 조공·책봉 관계 형성
<b>일본 (무로마치 막부)</b>	• 명과 국교 수립 : 명 황제가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 • 명과 감합 무역 전개

영락 원년 조거임 등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막 출발하려는데, 일본의 조공 사신이 이미 닝보에 이르렀다. 예부 관원 등이 아뢰기를, “관례에 따르면 외국 사신이 중국에 들어올 때는 사사로이 병기를 휴대하여 백성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 배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이르기를, “외부의 오락케가 조공을 행할 때는 가져온 것으로 여비에 보태려는 것이 인자성정이다. 어찌 알팔해서 금령으로 구속할 수 있겠는가? 가져온 무기에 대해서는 구매해 주어 복속하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였다. 10월에 일본의 사신이 도착하여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표문과 공물을 바쳤다. 황제가 후하게 그들을 예우하였고, 관원을 보내어 그 사신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아시카가 요시미쓰에게 관복과 금인 및 비단을 주었다.

- 「명사」 -

1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가]의 화가 빌렘 칼프가 중국 도자기를 소재로 그린 정물화입니다. [가]은/는 17세기부터 바타비아, 나가사키 등을 거점으로 삼아 중국제 도자기를 유럽에 대량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 ① 일본의 난학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 ② 청에 매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③ 마카오를 근거지로 명과 교류하였다.
- ④ 마닐라를 갈레온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
- ⑤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일으켰다.

**3-02-2)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3-03-4) 새로운 학문의 발전**

네덜란드, 난학, 난이도 下

**Key-Word**

: 17세기부터 바타비아, 나가사키 등을 거점으로 삼아

- ② 영국, 1793년
- ③ 포르투갈, 1557년 이후
- ④ 에스파냐, 1571년
- ⑤ 러시아, 1895년 5월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14

▶ 유럽 상인의 아시아 진출

포르투갈	• 볼라카 정벌(1511) → 일본 최초 도착(1543) → 명으로부터 마카오 조처(1557) → 마카오를 근거지로 일본과 명 사이에서 중계 무역 전개 • 나가사키 개항(1570) → 포르투갈 상선의 최초 입항(1571) → 나가사키 데지마 상관 건설(1636) → 포르투갈 상인의 내항 금지(1639) • 일본의 조총과 화약, 명의 생사와 비단을 팔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서 유럽으로 수출
에스파냐	• 루손섬의 마닐라 진출(1571) → 갈레온(galleon) 무역 전개,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완성(1606) • 멕시코의 아카풀코 항에서 가져온 은으로 중국의 비단, 도자기, 면직물 등을 사서 유럽에 판매
네덜란드	• 동인도회사(1602), 막부쿠 제도 진출하여 포르투갈로부터 지배권 약탈(1599), 바타비아(자야카르타)에 교역 거점(1619), 플라가 확보(1641) • 타이완에 식민지 건설(1624-1662) → 쌀과 설탕 등을 생산하여 판매 • 일본 도래(1600), 히라도 상관 설치(1609) → 나가사키 데지마 상관 이주(1641)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37

▶ 에도 시대의 학문

성리학	• 관학 재편, 무사 계급의 주종 관계 합리화 → 중국이나 조선과 달리 사회를 지배하는 윤리로 정착하지는 못함.
양명학	• 불합리한 사회 현실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실천적 성격 표방,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무사들의 공감 • 나가사키 도주(신분을 초월한 관료사상 주장, 1608-1648), 구미지와 반전도류기의 가문의 쇼군 세습 비판, 1619-1691)
고학(송학)	• 성리학 극복을 위해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 복귀 주장, * 일본학(日本學)·회학(和學) • 이토 진사(주자 비판, 1627-1705), 오규 소라이(중국 교대 상인의 도를 밝히고 학문을 강조, 1666-1728)
국학(일본학)	• 일본의 언어, 문학, 신화 등을 통해 일본 고대의 황금시대를 강조(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 불교, 유교 등의 외래 사상 비판 • 모토오리 노리나카(1730-1801) : 일왕에 대한 충성심 강조(대일본사) : 『고사기』를 연구하여 『고사기전』 저술(1798), 일본 우월주의, 종합양이 운동에 열함
난학(蘭學)	• 네덜란드 상인에게 개방한 나가사키를 통해 어학·의학·지리학·천문학 등 서양 학문 수용, 각지에 난학 교습소(데키주쿠) 설치(1838) • 미에노 료타쿠(1723-1803)·스기타 겐라쿠(1733-1817) 등의 주도로 『가타타리신쇼(해제신서)』 간행(1774) → 본격적인 난학 발전의 계기 • 경험적·실증적 학문 방법론 발전

☆ 2025 수능 특강 p.73

에스파냐 사람들이 여송(지금의 필리핀 루손섬)의 방비가 없음을 틈타, 왕을 습격해서 죽이고 그 나라 백성들을 쫓아내어 정령하였다. …… 이에 앞서 중국의 푸젠 사람들은 여송이 거리가 가깝고 물자가 풍부하여,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달하였으며, 종종 그곳에 오래 살게 되어 돌아오지 않은 채 자손을 기르는 경우도 있었다. 에스파냐는 여송을 탈취한 뒤 총독 한 명을 파견하였고, 중국인들이 난리를 일으킬까 염려하여 많은 사람들을 쫓아 보냈다.

- 『명사』 -

12. 밑줄 친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로 옳은 것은?

요즘 스모 열기가 뜨거워. 막부의 쇼군께서 관람하신 뒤로 더욱 인기가 많아졌어.

맞아. 인기 스모 선수의 초상화는 **우키요에**로 제작되어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군.



① 한국 -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하였다.

- ② 중국 - 경사 대학당이 건립되었다.
- ③ 중국 - 현장이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 ④ 일본 -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 ⑤ 일본 - 긴자에 서양식 거리가 조성되었다.

3-03-3) 서민 문화의 발달

에도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 난이도 下

Key-Word

: 우키요에로 제작

- ② 1898년
- ③ 당, 646년
- ④ 나라 시대, 745년
- ⑤ 메이지 정부, 1872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34-135

▶ 방·정대 서민 문화의 발달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성장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문화 발전 → 도시 생활을 소재로 한 유희와 오락을 즐기는 풍속적인 취향이 반영</li> <li>• 부유한 상인들이 문화의 주류로 등장</li> <li>• 청대 고종학 후원, 출판문화와 지역별 음식 문화도 상인을 중심으로 발전</li> <li>• 인쇄술의 발전으로 소설, 희곡, 시형용 도서 등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면서 문화 수준 향상</li> <li>• 농업이나 과학·의학·지리 등 실용 지식의 전파</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교 사원이나 도교 사원 등 종교 시설에서 벌어지는 행사나 축제</li> <li>• 곡예·잡기·마술을 공연하는 대규모 공연장에서 여가 활동</li> <li>• 종합 예술인 연극은 농촌을 순회하며 공연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li> <li>• <b>경극(京劇), "배이징의 오페라", 황실과 상인이 극단 지원</b>, 각지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 연극이 크게 발전</li> <li>• "서유기", "삼국지연의", "수호전", "<b>홍루몽</b>(조설근, 1791년 출판) 등 <b>대중 소설</b>이 서민 사이에서 유행</li> <li>• 도시 생활이나 민간 풍속을 묘사한 그림, 정월에 집안에 붙여 두는 <b>연회(年畵)</b>를 좋고 벽을 둘러들이는 풍습에 따라 그려진 그림, 年畵 등이 인기</li> </ul>

▶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성장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정염의 발달, 서당을 통한 교육 보급, 서민 의식 성장</li> <li>• 시화·경제적 변화와 신분 구조의 변동, 실학 등의 영향으로 서민층의 지위에 바탕을 둔 문화 발달</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흥선대정", "춘향전", 등 <b>한글 소설</b> 유행</li> <li>• "춘향가", "홍부자", 등 <b>민소리</b> 발달</li> <li>• <b>탈춤, 산대놀이</b> → 춤과 노래, 사설로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여 서민들 사이에서 인기</li> <li>• 풍인이나 부녀자, 기생, 상인 등이 즐겨 부른 <b>사설시조</b>의 발달</li> <li>• 미술에서는 서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을 묘사한 <b>풍속화, 민화(문진도·호작도)</b> 등이 성행</li> <li>• 풍속 화가로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의 장면을 묘사한 김홍도, 도시민과 부녀자의 모습을 회화에 담은 신윤복 등이 유명</li> </ul>

▶ 에도 막부 시대 조민 문화의 유행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이 자유로웠던 <b>조닌이 도시의 중산층으로 등장하여 특유의 문화 발전</b></li> <li>• 여가를 활용하여 문화와 연극, 그림 등의 예술 향유 → 점차 다른 사회 계층에게 확산</li> <li>• <b>읽기, 쓰기, 셈법 등을 가르치는 테리코야(寺子屋) 확산(1690년대)</b></li> </ul>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에서는 남녀의 예절이 주요 소재로 이용, 주로 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 ex) "일본열대장,(이하라 사이카부)</li> <li>• <b>문리쿠</b>(연동적인 인형극, 년교조꾸미), <b>가부키</b>(노래와 춤·재주를 결합한 대중 연극, 무사의 복수나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다룬 풍속적인 내용,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유행 → 가부키 전용 극장이 생기고 나중에는 지방의 마을에서도 공연</li> <li>• <b>우키요에</b>(게이샤(藝者)나 배우, 풍속·풍경 등을 묘사한 채색 목판화, 가쓰시카 호쿠사이, 1681-1 발달 → <b>유일 인상과 화가에 열화</b>)</li> <li>• 꽃꽂이, 정원 장식, 디도 등 일본 고유의 예술도 발전</li> </ul>

가장 2025 수능 특강 p.87

(가) 막부 시대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도록, 또 걸린 경우에도 빨리 가볍게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호소에라 불리는 우키요에를 문이나 집 안에 붙이거나 병자의 머리맡에 놓아 부적 대신 사용하였다. 호소에는 옛날부터 질병이나 재난을 피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어져 온 붉은색을 이용하여 목판화로 제작된 것이 많았다. 또한 천연두의 발생 원인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신 때문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신이 두려워하는 건강함을 상징하는 동화 속 인물이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상징들이 그림에 자주 등장하였다.



13.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3일 전, 이 나라의 헌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천황이 헌법 제정 및 의회 개설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 거의 8년 만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근대적 입헌 제도가 마련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에 천황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헌법이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고, 양국 간 우호를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미일 화친 조약 체결	메이지 정부 수립	일본 제국 의회 설립	을사조약 강제 체결	워싱턴 회의 개최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01-3)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자유 민권 운동과 대일본 제국 헌법, 난이도 下  
**Key-Word**  
 : 3일 전, 이 나라의 헌법이 공포  
 : 천황이  
 :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헌법

미일 화친 조약 체결(1854)  
 메이지 정부 수립(1868)  
 일본 제국 의회 설립(1890)  
 을사조약 강제 체결(1905)  
 워싱턴 회의 개최(1921~1922)  
 중일 전쟁 발발(1937)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58

▶ 일본의 자유 민권 운동과 대일본 제국 헌법

자유 민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b>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b> 요구하는 운동 본격화</li> <li>애국공당 결성(1874)</li> <li>이티카와 다이스케 등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제출(1874)을 계기로 전국적인 자유 민권 운동으로 확장</li> <li>정부는 부분적인 지방 제도 개편을 통해 자유 민권 운동의 무마 시도 → 오무보 도시미처(1830-1878)의 암살로 정치 공백</li> <li>쿠에키 에모리의 헌법 초안 작성(1881)</li> <li>이토 히로부미(1841-1909) 등 주류변 지사들의 집권(메이지 14년 정변, 1881) →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 약속</li> </ul>
대일본 제국 헌법 (= 메이지 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황의 최고 고문 기관으로 창설된 후밀원에서 정문 76개조로 헌법안이 확정 → 반포(1889, 2.)</li> <li>메이지 천황은 총리대신에게 헌법을 하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b>천황 중심의 흡정 헌법입을</b> 분명히 천명</li> <li>일한제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li> <li>천황은 신(神)이면서 동시에 군주(君主)이고 하는 이중적 성격 부여, 총헌부의 존재이자 헌법의 기관으로 규정</li> <li>국가 권력은 '천황 대관'의 명목 아래 신전 포고, 조약 체결, 군 통수권 등을 광범위하게 보장</li> <li>중의원 선거 → 제국 의회 구성(1890, 11.)</li> </ul>

\* 2025 수능 특강 p.90

-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찬(協贊)을 거쳐 입법권을 행사한다.
- 제7조 천황은 제국 의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 제33조 제국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 제41조 제국 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 제64조 국가의 세출과 세입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 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 대일본 제국 헌법 -

• 짐은 제국 헌법 제7조 및 제41조에 의거하여 본년 11월 25일 제국 의회를 도쿄에서 소집한다.  
 - 제국 의회 소집 조서 -

14.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는 청의 황제가 임칙서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를 통해 황제는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임칙서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오랑캐와의 통상을 단절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안으로 아편과 관련된 죄인들을 체포하였으나 아편 역시 일소되지 않았다....(중략)...그대의 노력이 도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전쟁을 유발하였으니, 짐이 어찌 실망을 억누를 수 있겠는가.



- ①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종결되었다.
- ② 공행 무역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 ④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발발하였다.
- ⑤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01-1)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아편 전쟁과 청의 개방, 난이도 下

Key-Word

- : 청의 황제가 임칙서에게 보낸 글
- :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임칙서의 탓으로 돌리고~
- : 아편과 관련된 죄인들을 체포

- ① 러일 전쟁(1904~1905)
- ③ 태평양 전쟁(1941~1945)
- ④ 청일 전쟁(1894~1895)
- ⑤ 의화단 운동(1899~1901), 신축 조약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43

제1차 아편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세기 영국과 청의 무역</li> <li>상각무역</li> <li>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청에 밀수출</li> <li>청의 아편 수입량이 늘어나던 <u>은이 영국 쪽으로 대량 유출</u> → 청의 재정 악화</li> <li>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 발생</li> <li>청 정부의 아편 수입 단속</li> <li>광둥 대신 임칙서(林則徐, 1785-1850)</li> <li>관전운, 영국 상인의 아편 물수와 폐기(1839)</li> <li>영국의 함대 파견과 공적(1840-1842) → 청의 패배</li> </ul>	
난징 조약 (184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차 영국 국민이 가족이나 하인을 데리고 상하이·닝보·푸저우·시먼(아모이)·관저우에서 박해나 구속받지 않고 상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거주하는 것을 보장한다.</li> <li>제3차 청은 영국에 <u>홍콩을 양도</u>하고, 영국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써 통치한다.</li> <li>제5차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u>특히 물, 염, 쌀, 고안, 거래하인 관행을 일예</u>로 어떤 상인이라도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li> <li>제8차 무릇 대영국인은 본국인이든 속국의 군인(Military)은 상관없이 중국의 관할 아래 있는 각 지방에서 구금되어 있는 경우 대청 황제가 즉각 석방을 승인한다.</li> <li>제10차 위함 제2조에 따라 영국 상인에게 개방한 항구에서 공평하게 <u>정해진 수입 관세율</u>을 설정한다. - 「중외규약장편」 제1책</li> </ul>	
제2차 아편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프랑스 선교사 오귀스트 사프롤랭 처형(1856. 2.), <u>애로호 사건</u>(광저우, 1856. 10.)</li> <li>진개: 영·프 연합군의 청 공격 → 광저우 점령과 텐진 제압</li> <li>체결: 청 - 영국·프랑스·러시아·미국 등 4개국과 조약</li> </ul>	
텐진 조약 (185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뉴장, 담저우, 함커우, 타이안, 단수이 등 10개의 <u>항구 추가 개방</u></li> <li><u>크리스티고 보교의 자유</u>와 선교사 보호, 장비 배상,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허용, 외국인의 중국 여행과 무역의 자유 보장</li> </ul>	
베이징 조약 (186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청 정부의 텐진 조약 비준 거부로 발미로 <u>영·프 연합군의 텐진 상륙과 베이징 점령</u>(원형원 소실), 러시아의 중재</li> <li>내용: <u>텐진 조약의 비준과 시행</u> → 크리스티고 선교의 자유 인정</li> <li>텐진 개항,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u>영국에 주둔반도 할양</u>,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li> </ul>	

☆ 2025 수능 특강 p.88

아편으로 인한 해로움이 더욱 심해지고, 현지에서 다른 물건으로 속여서 몰래 들여오고 있으며, 매년 교환되는 은이 수백만 냥(兩)에 이른다고 하니, 일상적인 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있는 힘을 다해 엄하게 금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폐해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그칠 것인가. 광둥에서 통상할 때 규칙을 준수하고, 교역에 은의 사용을 불허하라.

☆ 2025 수능 특강 p.102

<p>○○○○ 조약</p> <p>제2조 이곳 항구는 조약 조인 후 즉시 개방하고, 하코다테는 내년 3월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한다.</p>	<p>△△△△ 조약</p> <p>제3조 이곳, 하코다테 외에 다음 장소를 개항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가나가와 개항 6개월 후에 이곳은 폐쇄한다.</p>
--	---



15.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화재는 중국 충칭 가릉빈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가)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남긴 서명문이다. 이 행사에는 다수의 중국 국민당 고위 인사와 서양 외교 사절 등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중국 국민당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협조 속에 군대 창설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보 기 >
- ㄱ.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 ㄴ. 조선 의용대의 일부를 편입시켰다.
  - ㄷ.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단행하였다.
  - ㄹ. 파리 평화 협정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02-4) 국제 연대의 노력**  
 항일을 위한 한중 연대, 한국 광복군, 난이도 下  
**Key-Word**  
 : 1940년  
 :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 군대 창설을 준비  
 ㄷ. 국민 혁명군, 1926~1928년  
 ㄹ. 미군, 1973년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94

1937년	• 중일 전쟁 발발(7월)
1938년	• 조선 의용대 창설(한커우, 10월) : 김원봉 주도,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군사 조직, 중국 국민당 군대와 공동으로 항일 투쟁 전개 • 재화(在華) 일본 인민 반전 동맹 창립(구이팅, 12월)
1940년	• 한국광복군 창설(중국 국민당의 지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의 군대, 충칭, 9월)
1941년	•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11월) : 중국 중앙군 참모총장이 한국광복군에 대한 병형과 통제(- 1944) • 중국 국민 정부의 지원 →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독일에 선전포고(12월)
1942년	• 조선 의용대의 한국광복군 합류(김원봉, 5월) → 한국광복군 제1 지대로 편제 • 조선 의용군 결성(연안) → 중국 공산당의 지원, 팔로군과 항일 전쟁 추진
1943년	• 한국광복군 → 영국군에 편입되어 인도 - 미얀마 전선에 투입
1945년	• 중국과 원조한국광복군반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 체결(4월) • 미국 전략 정보국(OSS)의 지원 아래 국내 진공 작전 계획

☆ 2025 수능 특강 p.107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2025 수능 특강 p.109

전략 정보국(OSS)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밀 훈련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하 조직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적합한 요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훈련을 받을 자들은 임시 정부 요원 및 임시 정부 산하의 (가), 그리고 다른 한국인 부대들이나 집단들에서 선발할 것이다. 훈련의 지속과 증가, 확대를 위해 피점령 지역인 중국 본토, 만주, 한반도에서 모병되어질 것이다. 이들이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교란에 성공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보기 •
- ㄱ. 한커우에서 창설되었다.
  - ㄴ. 조선 의용대 일부를 받아들였다.
  - ㄷ.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가) 도시에 대한 학생의 발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아시아사 신문**    〇〇〇〇년 △△월 □□일

**일본 최초의 철도 개통**

어제 오전, **도쿄와 (가)** 을/를 잇는 **철도의 개통식**이 개최되었다. 천황은 일행과 함께 도쿄 신바시역에 준비된 특별 기차에 탑승하였고, 약 1시간 뒤 종착지인 **(가)**역에 도착하여 개통식에 참석하였다. 이때 그는 기차가 민생의 편리와 국가 경제 발전에 유용하다는 취지의 조칙을 내렸다. 이는 철도 부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선언으로 해석된다.

- ① 원자 폭탄이 투하된 곳입니다.
- ② 아주 화진회가 창립된 곳입니다.
- ③ 영국 상인이 신보를 창간한 곳입니다.
- ④ 복춘의 부인들이 여권통문을 발표한 곳입니다.
- ⑤ 피일 수호 통상 조약의 결과 개항된 곳입니다.

**4-01-1)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4-03-1) 서양 문물의 도입**  
 요코하마, 난이도 下  
**Key-Word**  
 : **일본 최초의 철도 개통**  
 : **도쿄와 (가)를 잇는 철도의 개통식**

- ① 히로시마, 나가사키
- ② 도쿄
- ③ 상하이
- ④ 한성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46

구분	차이점	최대국대우	영토 할양
난징 조약	× ⇄ ○(후면 추가 조약)		○
미일 화친 조약	×	○	×
미일 수호 통상 조약	○	×	×
제1차 시미즈 조약	×	×	○
조일 수호 조약	○	×	×

▶ 페리의 내항과 일본의 개국

배경	내용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해에 서양 선박이 출몰하여 교역 요구 → 예도 일부의 <b>쇄국(쇄국) 정책</b> 고수</li> <li>왕의 이런 정책 때 소식(네덜란드 동인도)에 해금을 완화하는 한편, 서양의 침략에 대한 방어 태세 강화</li> <li>미국의 대일본 정책 : 일본을 중국 무역과 북태평양 고래잡이 어업을 위한 중간 보급 기지로 삼고자 <b>페리의 책동이 이끄는 함대(흑선) 파견(1853)</b></li> <li>페리 함대 → 예도만 입구 무라가 앞바다에서 군사력 과시(함포 외교) → 국교 재결 요구</li> </ul>
미일 화친 조약 (185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 <b>이즈의 시모다(혼슈), 미쓰다에의 하코다테(혼카이도) 두 항구</b>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선이 장차, 물, 식량, 석탄 등의 부족한 물품을 일본에서 조달할 수 있는 한 보급하도록 미국선의 도래를 허가한다. 단, 시모다 항구는 조약 조인 후 즉시 개항하고, 하코다테는 내년(1855) 3월부터 개항하는 것으로 한다.</li> <li>제9조 <b>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이밖에 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았던 사항을 허가했을 때에는 미국인에게도 같은 사항을 허가한다.</b></li> </ul>
미일 수호 통상 조약 (185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다음 장소를 기한 내에 개항한다. <b>간사키, 나가사키, 니기타, 요코하마</b> 등.</li> <li>제4조 일반적으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b>별개의 규정대로 일본의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b></li> <li>제6조 <b>일본인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여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b> 미국인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법으로 처벌한다.</li> </ul>

☆ 2025 수능 특강 p.93 / 102

여객 열차는 표에 나와 있는 시각에 출발하고 도착하며, 매일 신바시와 요코하마 각 역 사이를 왕복한다. 승차를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표시된 시각의 10분 전까지 역에 와서 표를 사야 한다. …… 출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 표시된 시각의 3분 전에는 역의 문을 닫는다.

신바시	시나가와	가와사키	쓰루미	가나가와	요코하마(도착)
오전 8시	8시 8분	8시 26분	8시 34분	8시 45분	8시 53분

※ 신바시 기준, 오전 8시·9시·10시·11시, 오후 2시·3시·4시·5시·6시 출발

메이지 5년 9월부터 여객 열차는 표에 나와 있는 시각에 출발하고 도착하며, 매일 신바시와 요코하마 각 역 사이를 왕복한다. 승차를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표시된 시각의 10분 전까지 역에 와서 표를 사야 한다. …… 출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 표시된 시각의 3분 전에는 역의 문을 닫는다.



17.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화단 운동이 끼친 영향 중 하나는 혁명 세력의 급성장이 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체결된 신축 조약으로 청 조정의 무능이 드러난 상황에서 청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혁명파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민간에 확산하였다. 청 조정은 뒤늦게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민심의 지지를 받기 어려웠다. 결국 재정 확보를 위한 조정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대해 반발이 커지면서 (가)

- ① 5·4 운동이 일어났다.
- ②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였다.
- ③ 중국 공산당이 대장정을 감행하였다.
- ④ 독립 협회가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 ⑤ 하급 무사들이 존왕양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4-01-3)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신해혁명(1911), 난이도 下  
**Key-Word**  
 : 의화단 운동(1899~1901)이 끼친 영향  
 : 신축 조약(1901)  
 : 청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혁명파의 주장  
 : 청 조정은 ~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추진  
 : 조정의 철도 국유화 조치에 대해 반발이 커지면서  
 ① 파리 강화 회의, 베이징 정부의 외교 실패, 1919년  
 ③ 중국 국민당의 공산당 토벌, 1934~1936년  
 ④ 열강의 이권 침탈 규탄, 1898년  
 ⑤ 에도 막부의 개항 조약 체결, 1866~1867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159

<p>정치 신정 (1901~1908)</p>	<p>배경 : 의화단 운동 이후 개혁 요구 고조, 개혁 세력 분화(혁명파(청 왕조 타도, 공화정 수립), 입헌파(의회제 수용))</p> <p>내용 : 교육 개혁, 신식 근대 연성, 과거제 폐지(1905), 상공업 육성 등 근대화 개혁(신정) 추진                  : 양치치오를 비롯한 개혁론자의 입헌 운동                  : 라일 정령(1904-1905)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에 자극받아 입헌 군주제 주장                  : 정부의 수용과 '홍정 헌법 대강, 발표(1908)</p>
<p>신해혁명 (1911)</p>	<p>배경 : 청의 한족 지배에 반대하는 혁명 사상 확산                  : 중국 (혁명) 동맹회 조직(도쿄, 1905)                  : 운원(1866-1925) 주도, 삼민주의(민족·민권·민생)의 경형 선포</p> <p>전개 : 청 정부의 철도 국유화 명령 → 우항(무항) 신군의 반민(1911. 10.)</p> <p>결과 : ① 위안공의 독립 선언(1911. 11.)                  ② 중화민국 수립(난징, 공화제 채택, 1912. 1.)                  ③ 쑨원, 종대 임시 대통령 취임                  ④ 공화제 실시와 청 황제 퇴위령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을 갖고 있던 위안스카이(1859-1916)의 타협                  ⑤ 청 왕조 멸망(1912. 2.)                  ⑥ 위안스카이, 제2대 대통령 취임(1912. 3.)                  ⑦ 재제 운동(勳帝運動, 1913-1915) → 공자 숭상의 복고적 분위기 확산                  ⑧ 위안스카이의 황제 즉위(중화 제국, 1915. 12.) → 재제 취소(1916. 3.)                  ⑨ 위안스카이 사망(1916. 6.) → 군벌 난립</p>



2025 수능 특강 p.101

삼화로 보는 동아시아 역사

이 삼화는 중화민국이 채택한 공화제를 표현한 것이다. 이 혁명으로 수립된 중화민국에서는 공화제를 채택하였고, 중화민국에서는 '공화', '민권' 등의 근대적 관념을 민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삼화가 다수 제작되었다. 이 삼화는 중화민국의 오색기(왼쪽에서 첫 번째)가 미국 국기(가운데), 프랑스 국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것을 통해 중화민국이 미국, 프랑스와 같이 공화제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8. 밑줄 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오늘날 일본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점령이 종료되면 일본에 군사적 공백이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안전 보장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① 영일 동맹의 폐기를 명시하였다.
- ② 6·25 전쟁이 전개되는 중에 체결되었다.
- ③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이와쿠라 사절단의 파견에 영향을 끼쳤다.
- ⑤ 일본과 타이완의 국교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5-01-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년 9월 8일), 난지도 下 Key-Word

- :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점령이 종료
- : 새로운 안전 보장 대책을 모색

- ① 워싱턴 회의, 1921~1922년
- ③ 난징 조약, 1842년
- ④ 미일 수호 통상 조약, 1858년
- ⑤ 중일 공동 성명, 1972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16

6-25 전쟁 이후 형세 변화

일본	1950	결핵 예비대 창설(8월) 한국 전쟁 특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아더 군정 장관의 지원, 일본의 결비와 방위 담당</li> <li>• 유엔군에 각종 보급품과 장비 공급 → 경제 회복 기반 마련</li> </ul>
미국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 일본과의 평화 조약) → 발효(1952. 4.)</li> <li>• 총 52개국 참여(49개국 승인(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는 거부), 중국과 타이완 중화민국의 참가 배제, 대한민국의 참가 지적 부결)</li> <li>• 제1조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토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li> <li>• 제3조 남태평양 제도의 구(舊) 위임 통치 지역은 미국이 신적 통치하며, 오키나와의 오키나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적 통치 지역으로 산한다 [오키나와 반환 약속(1969) → 미환(1972)]</li> <li>• 제6조 본 조약이 시행되고 난 후 ..... 90일 이전에, 연합국의 모든 정령군은 일본에서 철수할 것이다. .... 외국 군대의 일본 영역 주둔 또는 주유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li> <li>• 제14조 연합국은 본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탈 과정에서 일한 및 그 국민이 지행한 어떤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그리고 정령에 따른 직할적인 군사적 비용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li> <li>• 제8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제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제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li> <li>• 제11조(특별 조항) 종래의 본 조약 제25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제10조 및 제14조 (a) 2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국은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li> </ul>
한국	1953	미·일 안전 보장 조약(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군사적 방위망 구축</li> </ul>
	1954	한미 상호 방위 조약(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 → 미국 육해공군의 한국 배치</li> </ul>
	1954	제네바 회담(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정치 회담 → 결렬</li> </ul>

2025 수능 특강 p.121

연합국과 일본은 이후 관계에서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사국 간에 그들의 공동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결의한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미해결 중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국제 연합의 회원으로 지원할 의도를 천명한 일본은 어떤 상황에도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려 하며, 세계 인권 선언의 목표를 구현하려 애쓰며, 유엔 헌장 55항과 56항에서 규정된,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이후 일본 헌법에 의해 시작된 안정과 복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려 한다. 또한 공적·사적인 무역 및 통상에서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공정한 관행들을 준수할 의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국은 위에서 언급된 일본의 의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따라서 연합국과 일본은 현재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장  
제1조 (a)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19. 자료에 나타난 운동이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땅도 전부 인민공사 명의로 재분배되고, 집 앞에 손바닥만 한 자유 경작지만 남았네.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집에 있는 솔까지 인민공사가 다 가져갈 줄을 누가 알았겠나. 들어보니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라군.

- ① 천수이볜이 총통에 선출되었다.
- ②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 ③ 장제스가 타이완에 계엄령을 내렸다.
- ④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었다.
- ⑤ 호소카와가 이끄는 비자민당 연립 내각이 수립되었다.

**5-01-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 대약진 운동(1958~1961), 난이도 下**

**Key-Word**  
 : 인민공사 명의로 재분배  
 : 인민공사가 다 가져갈 줄을  
 :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 ① 총통 직선제 개헌(1994) → 천수이볜 총통 선출(2000)
- ② 4·19 혁명(1960) → 이승만 하야
- ③ 국부천대(國府遷臺), 1949년 12월 → 계엄 선포
- ⑤ 55년 체제 붕괴, 1993년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39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정치 변화

1949년 이후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정책 추진 → 주요 기업 국영화, <b>토지 개혁법 공포</b> (토지 재분배, 1950. 6월)
1952년	• <b>합작사(농업 생산 협동조합) 조직</b> → 농민 대부분을 합작사에 가입시켜 <b>농업의 집단화</b> 진행
1953년	• <b>제1차 5개년 계획(1957)</b> → 소련을 모델로 중공업 중심의 공업과 추진
1956년	• 중소 이념 분쟁 발발
1958년	• <b>대약진 운동(제2차 5개년 계획, 농업과 공업의 대규모 증산 추진, 1958)</b> ✓ <b>인민공사 조직</b> (농촌 행정 기구 + 합작사, 1958) → 광범위한 농업 집단화 추진, 철강 생산 증진( <b>토벌고포</b> )을 위한 노동력 동원 ✓ 집단화에 따른 농민의 불만, 생산 의욕 감소, 기술력의 부족,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 ↳ 경제 위기, 2천만 명 아사(餓死)
1959년	• <b>루산 회의</b> (런더 회의) 등이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 비판, 7-8월)
1960년	• <b>마오쩌둥 실각</b> → <b>류사오지</b> (1898-1969)의 국가 주석 취임
1960년	• 소련의 일방적인 경제 원조 중단(기술 지원단 철수)
1964년	• 류사오지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
1966년	• <b>문화대혁명</b> (역사극 <해서과관(海瑞罷官)>에 대한 장칭의 평론(1965)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 -1976) ✓ 마오쩌둥,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西化)에 대한 투쟁 주장 → 조반유리(照反有理), <b>홍위병 조직</b> → 마오쩌둥의 권력 재(再)강화
1976년	• 저우언라이 사임(1월) → <b>텐안먼 사건(4월)</b> → 마오쩌둥 사임(9월) → 화궈펑이 장칭 등 4인방 숙청 → 덩샤오핑 복직(1977)
1978년	• <b>덩샤오핑의 권력 장악</b> , 흑묘백묘(黑貓白貓) · 선부론(先富論) 등의 <b>개혁·개방의 실용주의 정책 추진</b> ✓ 농업·공업·국방·과학 기술의 4개 부문 현대화, 외자 도입,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 도입, <b>경제특구 설립</b> (선진·주하이·산둥) ✓ <b>인민공사 사실상 해체(가족농업으로 전환)</b> , 법적 체제(1982), 사기업 설립 허용, 국영 기업을 민간에 매각, 대외 개방 정책 진행
1989년	• 후야오방 사임(4월) → <b>텐안먼 사건</b> (공산당 중심의 정치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과 무력 진압 → 장쩌민의 권력 장악(1990)
1992년	• 덩샤오핑의 <b>남선(南巡) 강화</b> → <b>중국 남부를 순시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성 강조</b>
1997년	• 영국의 홍콩 반환(中) 포르투갈의 마카오 반환(1999)
2000년 이후	• <b>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2001)</b> , 한·중 자유 무역 협정(한·중 FTA) 체결(2015),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창립(2016) • 후진타오 주석 취임(2003) → 시진핑 주석 취임(2013-)

가장 2025 수능 특강 p.132

연도(년)	농·공업 총생산액(억 위안)	전년 대비 성장률(%)	강철 생산량 (만 톤)	식량 생산량 (만 톤)
1959	1,960	19.5	1,387	17,000
1960	2,094	5.4	1,866	14,350
1961	1,621	-31	870	14,750
1962	1,504	-10.1	667	16,000

- 「중국공산당역사대사기(1919. 5~2009. 9)」-

중국의 마오쩌둥은 농업과 공업의 대규모 증산을 목표로 삼아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은 농민 재산의 무상 몰수와 이에 따른 농민들의 근로 의욕 감소, 반항,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강철 생산에 투입하는 농촌 인력의 증가에 따라 식량 부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이와 더불어 강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였다.

20.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고등학교

프로젝트형 봉사 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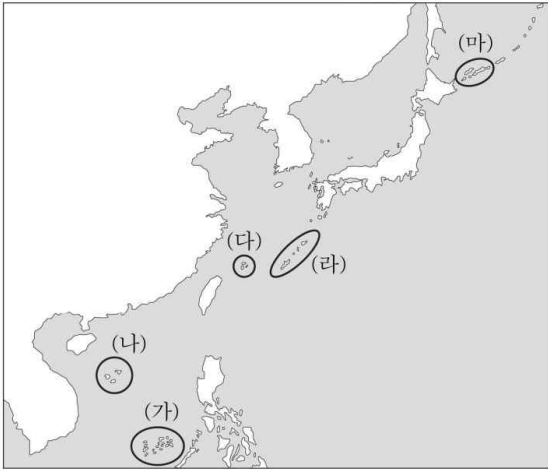
활동명	동아시아 평화 공존 캠페인		
학년 - 반	3 - 1	이름	○○○
활동 기간	2024.3.11. ~ 2024.3.28. 총 ( 5 )시간		
활동 영역	캠페인 활동		

주요 활동 내용

이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의 갈등을 다룬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평화 공존을 촉구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고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하였다.

<활용한 신문 기사의 제목>

- 타이완, '영유권 수호' 무력 불사(○○○신문)
- 중국, 군사 조치 가능성 검토(○○○○신문)
- 일본, 접근하는 타국 선박 실력 저지(○○일보)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5-03-1) 영토를 둘러싼 갈등**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 다오), 난이도 下  
**Key-Word**  
 : 세 나라의 갈등  
 : 타이완, 중국, 일본

- ① 난사 군도(스프레틀리 군도 / 쩡양사 군도)
- ② 시사 군도(파라셀 군도 / 호양사 군도)
- ④ 오키나와
- ⑤ 쿠릴 열도(북방 도서)

☆ 가장 합리적인 개념의 시작 p.248~249



☆ **연극부 열도**

1895	• 시모노세키 조약 → 오키나와현에 편입
1951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미국에 이양
1972	• 미국,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양도
1992	• 중국, 센카쿠 열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는 영해법 발표
1997	• 중·일, 센카쿠 영유권을 보유한 새 어업 협정 체결
2012	• 일본, 심 민간인 소유자에게 매수(買収)하여 국유화

☆ **후일 열도**

1905	• 일본, 러·일 전쟁 승리(포츠담 조약) 후 남부 사할란까지 강점
1951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쿠릴(소련이 쿠릴 열도 영유권 저지
1956	• 소일 공동 선언 →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섬을 일본에 인도하기로 동의 →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을 이유로 소련이 이행하지 않음
1993	• 도쿄 선언, 4개 섬의 귀속 문제 해결 합의
2009	• 아소 다로 일본 총리 → 러시아의 불법 점거 주장
2010·2012	• 러시아 매드베르크 총리, 쿠릴 열도 최남단 쿠나시르섬 방문

☆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

☆ **시사 군도(베트남, 호양사 군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기삼 관측소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이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서 영토 분쟁이 더욱 심해졌다.

☆ **난사 군도(베트남, 쩡양사 군도)**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는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배장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커지고 있다.

☆ **연안국 최고 시정인 지형(SCAPIN) 제677호(1946)**

제3차 분 지형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의 4개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쓰시마 섬을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한 작은 도서들로 한정되며,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 독도) 및 퀴르티(Quelart, = 제주도)를 제외한다.

(가)

(나)

(다)

(라)

(마)

☆ 2025 수능 특강 p.134

**남쿠릴 열도의 4개 섬 (북방 도서)**

- 일본, 러시아가 영유권 주장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 → 현재 러시아가 영유

**센카쿠 열도 (댜오위 다오)**

- 중국, 타이완, 일본이 영유권 주장
-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시사 군도 (파라셀 군도)**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관리 →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 후 영유

**난사 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영유권 주장